



07-36 (통권 163호)

2007.9.7

CHAIRPERSON NOTE

경제 이슈

- OECD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
- 8월 무역수지, 15.4억 달러 흑자

경영 노트

- 대국굴기(大國崛起)의 교훈

사회 트렌드

- 한국은 나이·직업이 지위 결정
- 일본, 고향稅 도입한다

저널 브리프

- 러시아, 오일경제의 두 얼굴

洗心錄

- 고전(古典), 디지털 시대의 또다른 경쟁력

□ OECD,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

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는 금융부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실물부문 확산을 우려하여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
 - 미국과 유로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각각 1.9%와 2.6%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지난 3월 전망치보다 0.2%p와 0.1%p 하향 조정된 것임
 - 현재 금융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는 보다 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

- 한편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는 등 금융부문의 불안이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음

□ 8월 무역수지, 15.4억 달러 흑자

- 산업자원부의 8월 수출입동향 자료에 의하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.4% 증가한 312.3억 달러, 수입은 9.8% 증가한 296.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5.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
 - 수출은 자동차·철강·일반기계 등 수출 주력 품목의 호조세에 힘입어 1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함
 - 수입은 원유수입 감소로 원자재의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이 호조세를 나타냄

-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 하반기에도 수출 여건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으나, 주력 품목의 수출호조와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향상 등으로 수출증가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□ 대국굴기(大國崛起)의 교훈*

- (개요) 중국 CCTV가 2006년 11월, 총 12부로 제작하여 방송한 ‘대국굴기’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
 - ‘대국굴기’는 15세기 이후,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9개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 프로그램으로 강대국의 조건을 제시함
 - 국내 재계에서는 대국굴기의 내용이 글로벌 초우량 기업을 만드는 방법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
- (교훈) 창의적 사고, 스피드 경영, 비전 리더십, 위기를 기회로 전환, 교육과 문화 투자가 대국굴기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우량 기업의 방법론임
 - 대국굴기에서는 강대국의 조건으로 단결력과 문화, 새로운 체제로의 변환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업측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음

< 대국굴기에서 배우는 글로벌 기업의 방법론 >

교훈	내용
창의적 사고	- 포르투갈, 스페인 : 공유 개념이던 바다를 처음으로 영토화 - 네덜란드 : 강대국들이 식민지 건설에 집중할 때 중개무역 개척
스피드 경영	- 러시아 : 과감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비약적 성장 - 미국 : 뉴딜정책의 강력한 시행으로 경제 대공황 극복 - 일본 : 메이지 유신으로 식민지 전략 위기에서 탈출
비전 리더십	- 포르투갈, 스페인 : 엔리케 왕자, 이사벨 여왕의 지원으로 신대륙 탐험 - 독일 : 비스마르크의 강력한 철혈통치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
위기를 기회로 전환	- 네덜란드 : 청어교역 중심의 약소국에서 세계 중개무역의 메카로 등장 - 미국 :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
교육 문화 투자	- 독일 : 훔볼트 대학 등 현대 교육기관 육성으로 과학 독일 초석 마련 - 영국 : 뉴턴, 와트, 스미스로 대표되는 기술경제 기반이 산업혁명 촉발

- (시사점) 초우량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新성장 동력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인본주의 경영이 요구됨
 - 대국굴기에서는 강대국으로 발전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상공업에 대한 경시로 3류 국가로 전락했고, 독일과 일본은 자국만이 강대해지기 바라는 독선으로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사실을 지적함

* 이 글은 한국경제(2007.7.2)에 게재된 “[中 다큐 대국굴기 열풍] ‘위대한 기업 만들기’.. 한계 넘어서는 강한 리더십 필요”를 요약재구성한 것임

□ 한국은 나이·직업이 지위 결정

- 전세계 여행자들에게 바이블과 같은 역할을 하는 론니플래닛(Lonely Planet) 한국판 2007년 개정판에서 한국의 특징으로 ‘끈기를 꺾고 있음’
 - 또한 저자들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질서, 새치기, 난폭운전 등에 대해 ‘빨리빨리’로 대변되는 나름의 정신 때문’이라고 진단함
 -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“대체로 웃지 않는다”며 “볼링이나 등산, 해외 산업개발에서 보듯 한국인들에게 삶은 경쟁적이며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”고 묘사
- 또 한국은 ‘아시아에서 가장 유교적인 국가’로 소개했는데, 나이와 직업이 그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는 점을 근거로 꼽았음
 - 론리플래닛은 한국 여행객들에게 ▲구멍나지 않은 양말(절이나 전통음식점 등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기 때문) ▲몸짓으로 말하는 기술(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많지 않음) ▲발가벗는 연습(온천이나 찜질방에 갈 수 있어야 함) ▲침대시트(이불 부족) 등을 반드시 챙기라고 권함

□ 일본, 고향稅 도입한다

- 일본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이른바 ‘고향세’를 도입
 - 日 총무성은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세의 10%를 자기 고향에 납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세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09년부터 고향세가 본격 실시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함
- 이에 따라 지자체 간 주민세 기부 유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
 - 고향세를 도입하기로 한 데에는 대도시와 농어촌 간 세수 격차가 날로 커지면서 지방 주민의 생활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임
 - 한 예로 2005년 일본에서 한 사람당 지방세수가 가장 많았던 도쿄와 가장 적었던 오키나와현 간의 세수 격차는 3.2배에 달했고, 법인세만 보면 도쿄와 나가사키현 간의 세수 격차는 6.5배나 됨

□ 러시아, 오일경제의 두 얼굴*

- (현황) 석유, 천연가스 개발을 통한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오일머니가 러시아 경제의 부흥을 불러 오고 있음
- (에너지 자원 수출 중심 경제의 단점) 외부 충격에 약하며, 네덜란드병 초래 가능성,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고조 등의 단점이 존재
 - 석유 및 가스의 국제 가격은 일반 제조업 상품에 비해 변동성이 커 국제 가격에 따라 경제 성장과 정부 소득의 심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재정 정책 추진에 애로 발생
 - 에너지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에너지 자원 수출의 증가로 유입되는 외화가 환율 절상 압력으로 이어져 타 부문의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네덜란드병(Dutch Disease) 발생 가능성이 큼
 - 수출 호조로 인한 에너지 부문의 임금 상승이 타 부문의 임금 상승을 유도할 뿐 아니라 오일머니 활용에 의한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르는 소비 급증은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음
- (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두르는 러시아) 한편 최근 러시아는 에탄올과 메틸에스테르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 개발 발표가 잇따르고 있음
 -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러시아의 석유 가채 연수는 22.3년으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상황
 - 이에 따라 지난 해 러시아는 유채, 옥수수, 사탕수수, 폐식용유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대체에너지 개발 투자에 힘을 쏟고 있음
- (시사점) 최근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러시아 진출 또한 활발해지고 있으나,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
 - 2006년 기준 한국과 러시아간 교역량이 97억 5,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 - 최근 롯데그룹이 모스크바에 백화점을 건설하였고, 삼성전자 등에서 투자 진출을 발표하는 등 국내 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활기를 띠

* 이 글은 『Economic Review』 (2007.9.11)에 실린 글을 요약, 정리, 재구성한 것임.

□ 고전(古典), 디지털시대의 또 다른 경쟁력

최근 우리 나라 지식인들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. 대학에서는 주로 고전으로 전공 서적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인문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서점에서조차 그 판매가 신통치 않다고 한다. 반면 이해가 쉽고 당장의 추세를 잘 설명해주는 학문이나 서적에 대한 열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. 그렇다면 과연 고전은 디지털시대의 등장과 더불어 사라져 갈 것인가? 디지털시대를 만들고 있는 주역들을 살펴보면 금방 그 답이 “아니다”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오히려 그 의미를 새롭게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.

엘빈 토플러는 아마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미래학자일 것이다. 비록 그가 디지털시대의 모든 모습을 미리 제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 상당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인물로는 치부할 수 있다. 그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독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. 이 자리에서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에게 해 줄 수 있는 충고가 무엇인지의 취지로 질문을 던졌다. 이에 대해 엘빈 토플러는 컴퓨터를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로봇을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뜻밖에도 독서를 많이 할 것을 조언하였다. 디지털시대의 멋진 모습을 그려온 사람의 입에서 아날로그 시대를 대표하는 듯 보이는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적지 않은 놀라움이었다. 그런데 그가 쓴 책들을 살펴보면 그가 오늘날 중요시되는 거의 모든 고전들을 섭렵하고 참고하여 그의 생각을 세상에 내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.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문명의 전도사가 바로 고전에 정통한 인물이었던 것이다. 당연히 그가 한국 학생에게 얘기하였던 ‘책’은 아마도 고전이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.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오늘날 디지털 문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미국, 그 중에서도 주요 IT기업의 CEO들을 배출한 최고 명문대학들의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엘빈 토플러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님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. 월가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총명한 젊은이들로 넘쳐난다는 말이 빈 말이 아닐 정도로 이들 학교들은 고전 교육에 대한 강조로 정평이 나있다.

그러면 왜 이들은 지금의 세계를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글로 남긴 고전에 아직도 집착하는 것일까? 물론 그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과 인간이 사는 사회가 그 모습이 변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본질은 과거 수많은 천재들이 고민하였던 문제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 모른다. 민주주의라는 말은 플라톤이 2,000년도 전에 쓴 저서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그가 비교한 각 정치체제의 장단점은 오늘날에 비춰보아도 그 시사점이 적지 않다. 국가에 대한 충성의 문제는 홉스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시장 경제의 우월성을 아담 스미스보다 더 간결하게 이야기한 이는 감히 없다고 할 수 있다. 현대 정치가는 마키아벨리 앞에서 그 진짜 모습을 들어 낼 수밖에 없다. 따라서 거꾸로 들여다보면 이들이 남긴 분석과 주장은 인간과 인간사회가 취할 수 있는 변화의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. 이는 실용적인 의미로도 쉽게 연결된다. 곧, 아무리 기술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변화라고 해도 고전이 밝힌 인간과 인간사회의 변하지 않는 본질과 부합하기 힘들다면 현실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힘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. 바로 이것이 왜 모든 IT기술이 성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좋은 대학에서 아직도 고전을 가르치는 미국이 디지털 혁명을 이끌고 있는지의 의문에 대한 한 가지 답으로 보인다.

물론 고전만으로 변화를 만들고 읽어 낼 수 없다. 가장 이상적인 독서 방법은 고전과 현대의 빠른 변화를 설명해주는 책의 조화다. 변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쌓고 고전을 통해 그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남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. 당연히 엘빈 토플러가 보여주는 것처럼 고전은 모든 것의 기초며 둘 중에 필요하다면 우선시 되어야 한다.

**악서는 읽지 않으려 해도 자주 접촉하게 되지만,
양서는 꼭 읽으려 해도 기회가 뒤로 밀린다는 것이
일반적인 독자들의 현실이다.**

쇼펜하우어(1788~1860) : 독일의 철학자